

‘지정헌혈 관행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

글 박민수 대한산업보건협회 한마음혈액원 선임차장



지난 8월 17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환자와 환자 가족이 직접 헌혈자 혈액을 구해야 하는 지정헌혈,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국회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 토론회에서는 주최자인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을 비롯하여 김정숙 보건복지부 혈액장기정책과 과장, 황유성 대한산업보건협회 한마음혈액원 원장, 박기홍 대한적십자 혈액관리본부 헌혈증진국 국장 등 총 6명의 패널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안기중 백혈병환우회 대표가 준비한 자료에 따르면 ‘지정헌혈’ 건수는 2018년 1만 9,953건, 2019년 4만 5,429건, 2020년 7만 7,151건, 2021년 14만 2,355건으로 급증했고, 특히 코로나가 유행하던 지난해 지정헌혈 건수는 전년 대비 약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단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지 정 헌 혈	총계	3,391건	3,312건	2,485건	19,039건	20,726건	19,953건	45,429건	77,151건	142,355건
	전혈	1,728건	1,777건	1,575건	17,613건	15,958건	14,760건	64,041건	55,964건	111,644건
	혈소판	1,663건	1,535건	924건	1,426건	4,768건	5,193건	11,388건	21,187건	30,532건

안기중 대표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헌혈 가능 인구의 감소에, 코로나19 팬데믹까지 겹치면서 혈액 부족이 심화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혈액 수급이 어려운 만큼 환자에게 공급되는 혈액이 급격히 줄어들어 지정헌혈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중증질환자와 보호자가 치료와 간호 외에 지정헌혈을 통해 직접 혈액을 구해야 하는 이종고에 시달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혈을 제때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정신적 고통까지 수반되어 투병과 간병에 집중하지 못하고 실제로 지정헌혈자를 구하지 못해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환자도 있다”고 발표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 시간에 제시된 의견은 다음과 같다.

- 헌혈은 기념품보다 보람을 느끼는 봉사이기에 지정헌혈은 긍정적인 영향이 있으나 프로세스의 개선 필요
- 헌혈의 활성화로 안정적으로 혈액 수급만 된다면 지정헌혈의 비율은 자동으로 줄어들 것
- 장비와 인력의 충원에 비해 헌혈자는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기에 헌혈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 필요
- 직장인의 헌혈을 장려하기 위해 헌혈카페와 헌혈의집 운영시간 연장 필요
- 지정헌혈에 수반되는 리스크가 존재하는 만큼 의학적 치료를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

황유성 원장은 “현재와 같은 혈액 부족 상황에서 지정헌혈이 유일한 희망이라는 상황을 이해하고는 있지만 지정헌혈은 분명한 위험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하며 다음과 같이 4가지의 구체적인 이유를 들었다.



안기중 백혈병환우회 대표

같이 보기

: 지정헌혈 관행 개선 국회 토론회

- 수혈 관련 감염 우려(미국의 통계 조사 결과 일반 헌혈에 비해 지정헌혈이 감염병 양성률이 높음. 권유를 받고 헌혈하면 사회적 압력을 느끼기 때문에 문진 시 부정확한 응답을 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음)
- 초회(처음 헌혈하는)와 중단(2년 이상 헌혈을 하지 않던) 헌혈자의 비율이 높음(수혈감염 감염인자의 유병률이 통계적으로 더 높은 고위험 헌혈군)
- 동종면역의 획득(가족이나 가까운 친척들 간의 수혈 시 생기는 문제)
- 수혈자와 지정헌혈자 사이에 사회적인 관계에 의한 문제가 발생될 우려(상호 간에 도의적 책임에 대한 부담감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를 표명하며 지정헌혈은 의료적으로 불가피한 경우(희귀혈액형, 특정면역결핍, 신생아 혈소판 감소증 등)에 한해서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

앞서 언급되었던 헌혈카페나 헌혈의집 운영시간 연장에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이 헌혈 현장에서 발생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피력하며 개선방안에 대해 함께 검토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헌혈자의 안전 보장(늦은 시간 헌혈자가 귀가 중 후유증 발생 시 헌혈 기관의 업무가 종료된 경우 적시에 응급상황 대처가 어려움)
- 헌혈 실무 종사자의 근무 형태 및 삶의 질(업무 피로도와 휴일 근무)

따라서 안정적인 혈액 공급과 지정 헌혈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혈액 수급관리가 최선의 방법이며 이를 위해서는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황유성 대한산업보건협회 한마음혈액원 원장

- 교육부, 국방부 등 정부 기관이 참여하는 헌혈 증진 협의체 구성
- 현실적인 제도 개선(직장인들의 헌혈 장려를 위한 공무원 헌혈 공가 등이 일반 기업들에게도 적용되어 헌혈외출이나 헌혈조퇴 등으로 활용)
- 헌혈을 할 수 있는 공간 확충(한마음혈액원 헌혈카페, 대한적십자사 헌혈의집)
- 한마음혈액원과 헌혈카페, 헌혈의집에 헌혈 홍보 및 섭외를 위한 전문가 양성
- 헌혈과 수혈에 대한 정확하고 지속적인 교육(조기교육을 실시하고 성인교육으로 연계되도록)

등이 필요하며 헌혈에 대한 관심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기관의 헌혈 증진과 홍보가 절실하다고 하였다. 이에 한마음혈액원은 보다 안정적인 혈액 수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운영하고 있거나 예정 중에 있다.

- 경기도 군포시에 한마음혈액원을 두고 대전광역시에 출장소 운영
- 경기 수도권에 20개소의 헌혈카페 운영
- 대전광역시에 신규로 1개의 헌혈카페 개설 예정(10월 중)
- 단체 헌혈을 위하여 8대의 헌혈버스 전국적으로 운영

단체 헌혈문의

한마음혈액원

헌혈증진팀:

02-6198-2041~5

한마음혈액원 대전출장소:

042-710-7128

또한 헌혈증진팀의 헌혈 홍보와 섭외 전문가들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을 뿐 아니라 협회의 인프라를 기반으로 전국적인 혈액관리시스템(헌혈, 검사, 제제, 공급)을 갖추기 위해 중부권과 남부권에도 한마음혈액원 증설을 계획하고 있다. 🐾